



濁流清論

제40호 2015년 12월 7일(월)

발행인: 이순일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 (jyj263@ajou.ac.kr)로 보내주시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 | |
|---|----|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네 가지 풍경으로 추모하는 (고) 이상혁 교수님 | 1 |
| 특집 2015년 보직교수 워크숍 지면중계 | 5 |
| 소통과 담론 요즘 이무기는 왜 용이 되지 못하는가? | 9 |
| 교수들의 건강칼럼 전 세계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요? | 11 |
| 소식 - 2015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 개최 - 조교수/부교수 간담회 개최 - 교수회 제72차/제73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 12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네 가지 풍경으로 추모하는 (고) 이상혁 교수님

행정학과 강명구

프롤로그

소설사(小說史)에 있어 가장 유명한 첫 문장을 가진 소설로 뽑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웅장하고 유려한 대비(對比)로 프랑스 혁명 전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최고의 시간이었으며 최악의 시간이었고, 지혜의 시대였으며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믿음의 세기였으며 불신의 세기였고, 빛의 계절이었으며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었으며, 절망의 겨울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며, 모두 천국을 향해 갔지만, 반대로 가고 있었다.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it was the age of wisdom, it was the age of foolishness, it was the epoch of belief, it was the epoch of incredulity, it was the season of Light, it was the season of Darkness, it was the spring of hope, it was the winter of despair, we had everything before us, we had nothing before us, we were all going direct to Heaven, we were all going direct the other way.”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새천년을 맞은 아주대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우리는 디킨스의 첫 문장을 좀 무리는 있더라도 넉넉히 빗대어 인용해도 좋을 것이다. 아주대학은 신입총장의 취임 이후 각종 신선한 개혁으로 언론매체의 관심을 이끌어내 개교 이래 최고의 사

회적 평가를 누렸고, 그 결과 입시철이면 서울소재 유명대학 부럽지 아니한 훌륭한 인재들이 속속 모여들었으며, 신설된 의대가 본 계도에 진입하며 대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었고, 대학의 총장은 이 나라 최고위 교육 관료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의욕에 찬 교수들은 대학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에 바빴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모기업(?)인 대우가 해체되자 대학은 더불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해체의 와중에 모기업은 대학과 병원에 엄청난 부채를 몰래 전가시켰으며, 이를 문제 삼아 대학이 나가던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던 교수들은 “질이 싫으면 떠나야만 하는 중”으로 격하되어 징계를 받거나 승진 탈락하였으며, 존경받던 이사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사실상 경질되었으며, 일 년여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돌아온 전임 총장은 장관 퇴임 일주일 만에 전격 총장직에 복귀하였고, 그 결과 대학사회는 첨예한 대결로 두 동강 나고 말았다. 한 마디로 아주대학은 일로 일류대학을 향해 나아가듯 보였으며, 아주대학은 일로 사유화의 정점을 향해 대학의 형상을 한 기업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런 극명한 대비의 시절에, 고인은 이른바 “해교행위자” 교수들의 싸움터 야전 사령관이었다. 편안한 정년을 코앞에 둔 반백의 노교수가 기꺼이 가시밭길 인도자 역할인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인을 황망히 보내고 허전한 마음으로 옛적을 되돌아보니 주섬주섬 몇 점 빛 바랜 흑색사진에서 약간은 투박한 함경도 억양이 넘치시 스며 있는 말투로 내게 몇 마디 건네며 걸어 나오시는 듯하다.

풍경 하나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기 한 달 전까지도 고인은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동기인 만년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바둑을 두고(아마도 내기 바둑일 공산이 클 것이다.) 두 분이 파전이나 빈대떡 안주에 소주 세 병을 까는(!) 주간 행사를 즐기셨던 모양이다. 고인의 49재에 만나 빈 이 친구 분 전언이다. “상혁이가 한 성격했지. 고등학교 때였어. 학생데모가 흔했지. 우와 하면서 학생들이 교실을 뛰쳐나갈라치면 체육선생님이 작대기로 운동장에 금을 짚 곳고 ‘이 선 넘은 놈은 모조리 퇴학이다’라고 업포를 놓았지. 그럴 때 가장 먼저 튀어 나간 게 상혁이었어.” 이리저리 고인의 출생연도와 이승만 치하 정치사를 맞추어 계

산해보니 아마도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 직후라고 추측된다. 건국의 아버지니 뭐니 하며 역사교과서에 금박을 입히려 해도 한 꺼풀 벗겨내면 치졸하고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년덜머리나는 이승만의 노추(老醜)가 적나라하다. 이런 시절에 청년 이상혁이 어찌 행동했을지 짐작이 간다.

풍경 둘

내 연구실 책상 서랍을 열면 2000년 10월 11일 오후 6시 25분부터 시작하여 오후 8시 20분에 끝난 <3차 대학사유화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자세하게 관찰하여 기록한 문건이 원본 그대로 남아있다. 검은색 만년필 잉크를 사용하여 군데군데 한자를 섞어 능숙한 필체로 써내려간 이 문건의 작성자는 당시 어느 보직교수였다. 작성한 문건은 물론 논란의 가운데 서 있던 당시 총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치자면 이른바 “해교행위자” 사찰 보고서였다. 어떻게 이 문건이 내 손에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백해무익한 일이니 차라리 추측으로 버무려 대학사(大學史)의 퇴비 간에서 후대를 위해 자양분으로 숙성시키는 것이 나으리라. 진정 본의 아니게 이 사찰자의 노고를 무임승차하여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다. 다양한 인사와 상황보고 그리고 사법대응의 논의 과정이 완료된 후 집회의 말미에 야전 사령관이 전하던 연사(言事)는 다음과 같다. (그의 말투를 기억하시는 분은 약간은 어눌한 함경도 억양이 슬쩍 뵈 그러나 힘 있고 직설적인 고인의 어투를 따라 한 번 읽어 내려가 보시기 권한다.)

“지난 8개월간 동참에 감사한다. 학생 및 직원 여러분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 한 가지만 이야기 하자면, 총장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의견과 그 정도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60년대라면 모범 총장일 수도 있다. 당시는 학교 돈이 재단 돈이었고 그것이 곧 내 돈인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와 대학이 발전하여 이런 총장을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총장 하에서 대학이 4년, 5년, 10년 운영되면 우리 대학은 망할 것으로 본다. 악취가 풍기지 않는 깨끗한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학내문제인데 왜 밖으로 끌고 나가느냐 하는데 대학은 사회의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면 사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당연히 사회에 알릴 의무이기 때문에 신문에 알리고 소송하는 것이다.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현재대로 하면 소모전이 되기 쉬우니 수위를 높여 사태를 종료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더욱 강하게 힘을 합치자. 그러나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도 계속할 것이나 원칙을 저버리는 타협이나 비굴한 타협은 안 할 것이다. 투쟁은 계속하여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니 적극적인 동참과 지도를 부탁한다.”

풍경 셋

내게 그림 소질이 있어 고인을 캐리커처로 그릴 수만 있다면 아마도 십중팔구 이 세 번째 풍경이 묘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만큼 강렬한 기억이었고 잊기 힘든 경험이었다. 기억이 아련하고 가뭇하여 시간적 배경이 언제였는가는 뚜렷치 않다. 새 학기 시작하는 2001년 3월 초이었을 게다. 하여간 아침 등교 시간이면 코끝이 찡할 정도의 신선한 아침 공기에 반시간 남짓만 서있어도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날씨였다. 차를 타고 출근하던 나는 유신고등학교 쪽에서 좌회전 받아 교문을 들어서는데 펜스레 오른쪽 시선이 좀 편치 못하였다. 쳐다보니 웬 머리 허연 노신사가 기억하기로 약한 축색이었던가 미색이었던가 하여간 바바리코트를 입고 무슨 입간판 비슷한 구호를 목에 걸고 홀로 서 있었다. 한 번 더 보니 비상대책 위원장이었던 이상혁 교수님이었다. 머리 둔한 나도 요즘 젊은이들 말로 표현하자면 순식간에 상황이 급(急)정리되었다. 교수회 사무실에 남아있는 당시 자료집에 의하면 고인이 일인시위를 시작하기 며칠 전인 2001년 2월 28일 부로 의대 이 일영 교수께서 해 교행위를 이유로 해임되었다. 고인은 일말의 좌고우면(左顧右盼)없이 동료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단기필마로 상대를 향해 죽기 살기로 내달랐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자면 고인도 며칠 후인 3월 7일 징계위원회에 파면 요청되었다. 체육교사의 선을 가장 먼저 뛰어 넘어 나가던 젊은 이상혁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 후 무슨 신파조 영화 같은 일이랄까 아니면 어설픈 미국영화 속 순진한 시민들이 영웅에 급감동 받아 제제한 소시민에서 걸어 나와 폭포수처럼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한 마디로 상황 급정리는 급감동으로 이어져 상황의 급반전으로 내달랐던 것이다. 후학인 박 영무 교수도 교수회 의장 시절 일이 안 풀릴 때 이 방식으로 재미를 한 번 본 기억이 난다. 아무튼 옛말 틀린 것 없다. “나쁜(?) 습관은 오래 간다.” (Bad habits die hard.)

풍경 넷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정오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지장전. 고인의 49제가 치러진 곳이다. 평일이라 그런지 동참한 추모객이 모두 함해 열 두었으로 뜸하였다. 제상 위에 푸짐한 제물들이 몇 번 오르고 내리는 동안 삼배(三拜)도 몇 번하고 스님 독경 소리에 맞추어 뜻도 모르는 반야심경을 눈으로 쫓아가며 읽다 눈을 쳐드니 그 때마다 선생이 단정하니 양복을 갖추어 입고 그 특유의 반백 캐리커처로 제상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길고 긴 독경 소리 중 대충 까막눈이 그래도 어찌다 들 어본 구절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제야제 바라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色卽是空 空卽是色...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 娑婆訶)”였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 찾아보니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현상일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도 가르쳐준다. 좀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다. 사진 속 선생에는 선생이 아니 계시다. 아니 계시기에 선생은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에필로그

아주 오래 전 이상혁 교수님 정년퇴임 감사패에 넣을 문구를 부탁받고 이렇게 쓴 기억이 생생하다. “무엇을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닌 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49재 독경소리 듣고 나니 좀 바꾸어도 좋을 듯싶다. “무엇을 바라지 않으셨기에 무엇을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영전에 좋아하시던 소주 한 잔 올리고 재배합니다. 상향(尙饗).

이상혁(李相赫) 교수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 학력

| | | |
|------|-------------------------|---------------------------|
| 고등학교 | 서울고등학교 | 1953.04.01. - 1956.02.28. |
| 학사 | 서울대학교 / 전기공학 | 1956.03.01. - 1962.02.26. |
| 석사 | 서울대학교 / 전기공학 | 1962.04.01. - 1964.02.26. |
| 석사 | BRUXELLES UNIV. / 제어공학 | 1964.10.01. - 1965.09.30. |
| 박사 | BRUXELLES UNIV. / 다변수제어 | 1965.10.01. - 1973.03.31. |

■ 주요경력

| | |
|----------------------------------|---------------------|
| 브뤼셀 공과대학 부설 제어연구소 연구원 | 1965.10. - 1969.09. |
| 브뤼셀 공과대학 부설 제어연구소 연구조교 | 1969.10. - 1973.03. |
| 주식회사 Fortronic(Bruxelles) 제작 담당관 | 1973.04. - 1973.12. |

▶ 연설 중인 이상혁 교수

■ 아주대학교 주요경력

| | | |
|------|---------------------------|-------------|
| 위촉 | | 1974.04.01. |
| 보직임명 | (대학원)전자공학과 학과장 | 1977.04.01. |
| 승진임용 | 교수 | 1978.03.01. |
| 보직임명 | (대학본부)교무처 처장 | 1978.08.01. |
| 보직임명 | (연구기관)종합연구소 소장 | 1982.01.25. |
| 보직임명 | (대학)공과대학 반도체 및 시스템 연구소 소장 | 1990.04.01. |
| 보직임명 | (대학)공과대학 학장 | 1991.03.01. |
| 보직겸직 | (연구기관)공학연구소 소장 | 1991.07.26. |
| 위촉 | 교수 | 1994.06.01. |
| 해임 | | 2002.08.31. |
| 신규임용 | 명예교수 | 2002.09.01. |
| 전보 | | 2012.02.21. |
| 면직 | | 2015.09.11. |



▶ 맨 앞 가운데 이상혁 교수



▶ 행진 중인 이상혁 교수 (앞줄 제일 우측)

특집

2015년 보직교수 워크숍 지면중계

편집자주

<탁류청론>은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다산관 강당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보직교수 워크숍을 지면으로 중계합니다. 보직 교수 워크숍은 김동연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1부에서는 기획처장이 대학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발전 전략 To-Do List 추진 중간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사업 그리고 성인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에 대해 발표를 했고 그 이후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습니다. 10분간의 휴식을 거친 후 2부에서는 교무처장이 2016년도 1학기부터 도입예정인 도전학기 제도와 새로운 교수업적 평가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생 정착 교과목 및 강사법에 대해 발표했고, 발표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면의 한계상 <탁류청론>의 지상중계는 워크숍의 발표 내용과 의견 모두를 담지 못했음을 밝혀드립니다.

【 김동연 총장 인사말 】

지난 9개월 동안 일하면 느꼈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다름 아니라 의사소통문제입니다. 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학내 의사소통이 지금보다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본부에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첫 번째 원인은 본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소통 부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명확한 방향과 원칙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혹은 방향과 원칙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학교라는 조직이 의사소통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편하게 의사개진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면 소통과정을 통해 서로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리라 희망적으로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리 좋은 포맷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동안 학교에서 추진했던 중요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의견을 듣는 자리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통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학내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확신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의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학교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1부 지상중계

- 대학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발전전략 To-Do List 추진 중간보고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
성인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 기획처장 발표 】

아주 발전 계획 To-Do List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발전전략위원회, 아주발전전략실무위원회, 실무 TF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아주비전 2023> 체제 하에 정합성 실천력 있는 발전계획 초안을 작성한 후 교수 대상 11차에 걸친 브레인 스토밍을 진행하였고 학생과 직원 대상 브레인 스토밍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85명의 교수와 273명의 직원 및 학생대표 104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하에 브레인 스토밍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과제별 심층 토론 및 액션플랜 수립이 진행중이며 2015년 12월 과제 관련 담당부서 및 단과 대학 협의와 타당성 검토 및 사업 우선 순위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2016년 1월 전체 또는 과제별 추진 일정계획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발전계획 To-Do List는 1) 자기주도적 선택적 교육 2)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연구 및 교수 3) 지역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화 5) 지역 첨단산업과 협력을 주도하는 산학협력 이라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97.262점입니다. 총 34개 학교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감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2주기 대학구조 평가 준비와 관련하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정량평가 중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의 3년 평균이 72.40%임에 비해 우리 대학은 64.27%로 매우 낮습니다. A등급 대학의 3년 평균인 전임교원 확보율 7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2명의 순 증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환류시스템 구축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결과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차기 시행에 도입하는 환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여부가 구조개혁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나 환류시스템은 본교의 경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 아주대 중앙일보 평가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기준이 변화했습니다. 국제화 지표가 교육여건 지표와 통합되었고, 학생 교육개선 평가를 위한 교육 노력 및 성과 영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 수요와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창업 교육 지표가 신설되고 배점이 확대되었고, 교수연구 부분 평가에서 양 위주의 평가에서 질 중심의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평판도에서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배려하는 문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지표 도입으로 지방 국립대 약진한 이유도 평판도 조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지방국립대는 유리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약진한 이유도 산학협력 지표와 특성화 우수 평판도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종합평가와 4개 계열 평가로 진행(인문, 사회, 공학, 자연)된 이번 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종합순위는 16위(카이스트와 포스텍이 빠진 것을 감안해야 함)입니다. 2011년 13위, 2012년 16위, 2013년 15위, 2014년 16위에 이어 2015년도에서도 16위 입니다.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신규평판도 지표인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지표의 영향으로 지방 국립대학 평판도 점수가 대거 상승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사립대학은 평판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학교가 관리해야 할 지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강의규모, 교수당 자체 연구비, 현장실습 참여비율, 창업교육비율, 온라인 강의공개 등입니다. 교수확보율은 2015년 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2.24점으로 28위입니다. 2015년 기준 지표값 100% 달성을 위해서는 57명의 순증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연구 질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 편수 등 양 평가는 IF를 반영하도록 하여 양과 질 평가를 동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업적 평가제도에서 논문당 피인용 등 평가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산학협력 강화와 아주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대외평가지표를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될 것입니다.

향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프라임 사업은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되는데, 대형 프라임 사업은 큰 규모의 정원조정(입학정원 10% 또는 200명 이상의 이동)이 사업 참여조건입니다. 소형 프라임 사업의 경우 입학정원 5% 또는 100명 이상의 이동을 요구합니다. 반면 코어 사업은 정원 조정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대형 프라임 사업은 사회수요 선도대학이라는 사업 유형이며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 선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소형 프라임 사업은 창조기반 선도대학이라는 사업 유형이며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 대학은 다음의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정원 조정을 통한 프라임 대형 사업 신청
- 2) 단과대학별 정원 조정을 통한 프라임 소형 사업 신청
- 3) 프라임 사업을 포기하고 코어 사업을 신청
- 4) 프라임 소형 사업과 코어 사업을 병행 하는 것입니다.

자유토론

A) 프라임 사업의 경우 3년 한시 사업인데 미래를 담당할 구조조정을 미리 한다는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이 우리 대학의 전통과 철학에 부합할 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선정가능성이 중요한데, 선정가능성에서 구조조정이 클수록 점수가 높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프라임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코어 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 없는 지원사업이기에 부담이 없다는 점이 좋다고 본다. 인문대학은 CK사업을 두 가지나 하고 있기에 여건이 좋다. 최근에 도전학기제를 위해 인문대학이 노력했다는 점을 볼 때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인문대학 교수의 열정과 의지가 매우 강하다. 80%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전 과가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코어사업 추진위원회를 이미 발족시켰고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B) 프라임 사업은 쉽지 않아 보이며, 인문대 코어 사업에는 적극 찬성한다. 평생교육은 추진하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추진하고자 한다.

C) 평생교육에 관해 말하고 싶다. 특수대학원이 역사도 오래되었고 학교에 기여한 바도 많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대부분 직장이 있는 학생들이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을 평생교육 사업으로 돌리면 시대에 맞는 좋은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D)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토론하시면서 염려를 하신 게 사실이다. 프라임 사업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코어 사업을 인문대에서 한다면 좋은 일이다.

E) CK사업을 이미 전자공학과는 하고 있기에 프라임 사업이 3년 한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기에 한번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쉽지 않다. 각 과의 이해보다는 대학교 전체의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좋겠다.

F) 평생교육 사업은 정원 외라면 정말 좋겠다.

G) 평생교육 사업은 이름이 바뀌면서 7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학은 직업전문교육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다. 수능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다.

H) 바이오와 메디칼 관련 주식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산업을 예측해야 한다. 기존의 틀에서만 보면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앞서가는 혁신적인 아주대학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D)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같은 중요 결정을 할 때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한다. 대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학생 수가 필요하다. 3년 이득인데 30년 손해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정성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의 아주대학교의 모델에 관한 문제이다. 아주대학교를 어떤 대학으로 만들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를 만들 것인가 학문적 성과를 위한 대학을 아주대학의 미래를 볼 것인가에 따라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평가해야 한다. 우리 대학의 위상은 무엇인가, 우리 대학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구체적인 선택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J) 인구구조 변동을 고려할 때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 대비 학교 수는 많다는 대조는 이해된다. 지금 이 자리가 많은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학생의 규모 학교의 규모 학교의 철학을 지켜가는 일들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총장)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다. 모든 의견 다 소중하다. 세 가지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육부의 방향이나 선택지도 우리 학교가 나아갈 바에 비추어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학 본연의 역할과 해야 할 일 그런 점까지 생각해서, 우리 학교가 나아갈 방향과 길과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 물론 현실도 중요하기에 같이 고려해야 한다. 2) 여러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대안은 불가능하지만, 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배경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3) 결정이 되면 학교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2부 지상중계

- 도전학기
- 새로운 교수업적평가제도
- 신입생 정착 교과목 및 강사법

【 교무처장 발표 】

도전학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수동적 교육체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 취약”(출처: 본교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설문 결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형성된 수동적, 소극적 사고방식을 깨고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자기주도형 청년으로 탈바꿈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학기 동안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하고 달성하는 자기 주도성을 배양하는 것이 도전학기의 취지입니다.

도전학기란 “학생이 스스로 자신만의 도전과제를 직접 설계하고 그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이며 도전과목은 “도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과목”이며 도전학기는 “도전과목을 9학점 이상 취득하기 학기”입니다. 도전학기는 (1) 수동적 학습에서 능동적 자기주도학습으로의 의식 및 태도 전환 (2) 인생의 방향과 진로에 대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경험과 깨달음 (3) 자신감 있고 주체적 인생설계 및 삶의 도전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도전과목은 아주도전 1-6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제는 제한 없으나 자기 주도성, 독창성, 심도 깊은 내용, 도전적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은 “영역의 구분이나 제약 없이 본인이 도전하고자 하는 아이টে을 선정하여 도전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 도전”하는 학생 설계 프로그램과 국제화, 발명 취업 창업, 사회봉사, 인문 예술 분야의 학교 제안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학교 제안 프로그램은 예시로 국제화의 경우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외 창업 도전, 해외기업 산학 인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전학기는 학부 전체 재학생이 개인 혹은 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 후 대학교육혁신원으로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도전과목은 도전학기운영위원회에서 관련 교외기관 인증, 프로젝트 결과물, 지도교수 평가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P/F또는 A/B/C/F 를 부여하는 방법 중 선택될 것입니다.

2015년 12월 3일 학생설명회를 거쳐 12월 1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는 2016년 1월 15일 이후부터는 1월 18일에서 26일에 걸쳐 신청서 심사/컨설팅/보완이 진행되고 1월 27일 심사결과 발표를 거친 후 2월 1일에는 수강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수님들께는 학생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 및 격려 그리고 학교제안 프로그램 공모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도교수는 학생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 및 격려를 해주시고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하시는 역할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교수업적 평가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수업적 평가제도는 아시다시피 논문실적 중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수님들이 논문점수에 압박을 받았고, 교육 등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다양한 교수활동의 평가 미흡으로 본질적/확장적 활동이 모두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수활동을 평가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대학발전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질적/양적으로 대체 평가하여 교수업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질적/확장적 활동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잠정적으로 ‘총 공헌제’라 부르고자 합니다.

현재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의 최소기준에서 연구실적만 인정하고 일부 대체인정(산학협력, 초과강의)했다면 ‘총 공헌제’에서는 연구실적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우수교육, 사회봉사, 국제화 등에까지 대체인정을 확대할 것이며 연구의 질적 탁월성을 추가 인정하려 합니다.

현행 신입생 정착 교과목으로는 교양필수인 대학생활과 진로 및 신입생 세미나 그리고 진로설정과 어학역량 개발 1, 2가 있는데, 2016학년도부터는 아주희망과 아주인성(2016년도 간호학과 필수, 2017년도 전학과 필수) 과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일명 강사법)에 따라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절차가 변경됩니다.

자유토론

A)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것이라 했는데, 평가항목을 보면 과거와 유사하다. 바뀐 것은 평가점수의 변화 정도인 것 같다. 예를 들어 논문점수를 보면 Nature는 1,000점이다. 이는 생명공학과 전공 이외의 교수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수 체계가 과연 맞느냐? 연구비 오버헤드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사회봉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에도 있었다. 단지 점수가 낮았던 것이 문제다. 만약 사회봉사가 평가 지표라 해도 Nature는 1,000점인데 배점이 낮다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 학과별로 특색이 다르다. 국내외 학회에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활동할 경우 학회의 규모를 염두에 두면 큰 규모의 학회의 회장단인 경우 학교의 고려가 필요하다.

B) 업적평가의 원칙에 대한 질문. 항목을 학과별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즉 학과별로 자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즉 자율과 권장 사이에서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

C) 연구업적 평가 제도 중요하다. 승진이나 승격 기준 상향조정이 학교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중앙일보 랭킹과 승진·승격 기준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연구장려책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또 하나는 연구여건이다. 주요 대학들은 우수한 대학원생 인력 등 연구여건이 좋다. 우수한 연구실적을 가진 신진 교수 확보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 또한 우수한 연구실적을 지닌 교수들의 유출 또한 중요하다. 이런 요인들을 개선하는 데 본부측에서 많은 고민을 부탁한다. ‘총 공헌제’를

언급하셔서 기뻐다.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골고루 평가해주시면……. 다소 아쉬운 점은 연구부문에 있어서의 미세한 조정은 좋지만 교육과 봉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 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샘플로 예시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방학이 끝나기 전에 기대되는 ‘총 공헌제’의 구체적인 안을 바란다.

【 부총장 마무리 발언 】

감사드립니다. 서두에 총장님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더 활발하게 학과장님 학장님과 교수님들과 그 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담론**

요즘 이무기는 왜 용이 되지 못하는가?

금융공학과 원동철

이무기가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는 속담의 어원이다. 필자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비가 온 후에 도랑에 가보면 미꾸라지 뿐만 아니라 형형 색색의 작은 붕어들이 많이 살았다. 지금은 농약으로 인해 어린 시절에 도랑에서 즐기던 그 황홀함을 볼 수 없다. 청계천이 복원되었지만 아직도 도회지의 도로 밑에는 도랑이나 개천이 흐르고 있다. 콘크리트로 막아 났으니 개천의 용에 관한 전설이 그야말로 전설이 되었다. 이무기가 용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생태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전에도 사교육이 존재했지만 그 규모가 공교육을 파괴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사교육을 받아도 공교육의 보조역할을 했고 수업시간에 피곤해도 선생님의 무서운 질책을 생각하면 줄거나 다른 짓을 할 수 없었다. 사교육이 성적 올리기에 효과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사교육으로 인해 수업분위기가 흐려지지는 않았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로 큰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선생님의 권위와 스승을 우러러 보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공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으로 승천하는 것이 가능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아름다운 자연 습지에 누군가 빵 한 조각을 먹이로 던지고 물고기가 먹는 모습에 즐거워 할 수 있

다. 빵 한 조각은 습지의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천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물고기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모두 빵 한 조각씩을 던져 넣는다면 습지의 생태계는 부패하여 파괴될 것이다. 빵 한 조각을 던지는 행위가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다. 습지의 아름다움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고기 먹이를 습지에 던지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먹이 투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매점을 통해 물고기 먹이를 매입하게 규정하고 습지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먹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서는 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밀어내고 파괴하는 과정과 이를 방지하는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교육 광풍은 강남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 현장으로 달려간다. 밤 늦게까지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받고 귀가하여 그 내용을 복습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늦게 잠자리에 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학생들은 다음 날 학교에 오면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지루하여 딴 짓을 하게 되고 피곤하니까 수업시간에 즐겁게 된다. 공교육 현장에서는 졸업생들의 입시 성과를 위해 이러한 현상들을 눈 감아왔고 그와 더불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을 야단쳐왔던 선생님의 권위도

교실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와 열정이 식었고 교실 안의 수업생태계가 파괴된 것이다. 누구의 잘못일까?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열정에는 문제가 없다. 사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태도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 오랜 기간 동안 교단을 지켜오신 선생님들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다. 문제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상당수가 교실 안의 교육생태계를 교란시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데 있다. 한 두 학생만 수업시간에 졸게 되면 수업분위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여기 저기서 졸고 딴 짓을 하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선생님의 권위도 상처를 입게 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공교육의 부실은 입시경쟁에서 공교육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밖에 없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어 학력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기회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교실 안의 교육 생태계가 파괴되는 과정은 습지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능력이 있는 이무기들이 용으로 승천할 있게 터전을 마련해준 공교육의 생태계가 파괴되니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보면 부유한 부모의 교육열정이 사교육 시장을 키웠고 앞에서 언급한 사교육의 외부효과로 인해 공교육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가난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던 교육환경이 파괴된 것이다. 습지의 예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결과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 발생시키는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의 부산물이다. 이 글은 사교육의 근원이 되는 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의 교육열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경쟁기업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실력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인간의 많은 행위들이 시장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외부효과)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렇지만 기업의 생산활동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은 국가 정책의 대상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교육의 외부비경제는 형평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큰 사회적 비용과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적절한 정책적 처방을 필요로 한다. 공교육에 대한 금전

적 비용은 학부모 부담 비용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학생들이 공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공교육 비용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러한 규모를 감안한다면 사교육이 공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의 경제적 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총비용 대비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장기에 걸쳐 국민소득과 인적자본의 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전체에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외부효과는 경쟁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저해한다. 앞에서 지적한 사교육의 외부비경제는 우리 나라 인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피구의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듯 사교육의 외부비경제를 바로 잡는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는 공교육 현장에서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사교육 현장에 적정 수준의 교정적 세금(corrective tax)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금 수입은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거나 회복하는데 투자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효과를 바로 잡는 다른 방법으로 코즈(Coase)의 협상이론이 있는데 이 방법은 외부효과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무수히 많을 경우 실행하기 어렵다.

필자는 헝그리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배수진을 치면 못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헝그리 정신은 배고픔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우리 나라가 가난했던 시기에 개천의 많은 이무기들이 승천하지 못했다면 세계가 우러러 보는 경제발전도 없었을 것이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중심 산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우리 나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배고픈 이무기들이 승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누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필자는 교육시장 실패로서의 이 무기 죽이기 가설을 제시했다. 공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퇴화되어 왔다. 공교육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복개되어 생태계의 기능을 상실했던 청계천을 복원하는 사업보다 더 많은 준비와 더 큰 정책적 결단이 요구될 것이다. 실증분석하는 학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교육에 의한 교육생태계 파괴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피구의 접근방법을 통한 교육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정책 제언에 관한 후속적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전 세계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요?

의학과 정신건강의학교실 홍창형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치매환자가 62만 명이고요, 10년 뒤 2025년에는 100만 명 될 거라고 합니다.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 수원시 인구가 120만 명이니 본격적인 치매사회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지요. 치매라는 병 자체가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고 간병하기 어려워지니 집안 가족들 얼굴에 그늘을 드리우게 됩니다. 간병에 효자 없다고 간병이 장기화되면서 자식들도 치매 걸린 부모를 돌보기 힘들어 합니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게 되지요. 어느 가족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치매가 평온했던 가정을 불행으로 이끄는 가정 파괴범과 같다는 말까지 생겨납니다. 이젠 평균수명이 늘어서 82세까지 사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에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치매를 손꼽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수십 년 동안 원앙처럼 금슬 좋게 사셨던 부부가 부인이 치매에 걸리자 긴 간병 끝에 부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기사가 신문에 날까요? 누구도 이렇게 무서운 병 치매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노력 여부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필자가 미국 UCSF 대학 노인정신과학교실에 연수할 때 같은 연구팀에 있었던 테보라 반즈(Deborah Barnes)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2011년 7월 란셋 뉴롤로지라는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참 선량해보이고 푸근한 인상을 가진 중년 여성으로 남들을 잘 배려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정례 연구 모임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통계적 오류나 연구의 모순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지만 결코 잘난 체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한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반즈 교수가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에 이론적으로 치매의 위험요인 7가지만 없앨 수 있다면 <전 세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집단기여위험도>라는 통계학적 개념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치매 발생에 위험하다고 알려진 일곱 가

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이지요.

반즈 교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강력한 위험인자 중에서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주목했습니다. 왜냐면 성별, 유전자, 나이와 같은 위험인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반즈 교수는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면 예방 가능한 치매의 위험인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반즈 교수가 주목한 예방 가능한, 7가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인자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 뿐 아니라 혈관성 치매도 잘 생깁니다. 미국 성인의 9%가 당뇨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6%가 당뇨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1.4배 증가합니다.

둘째는 중년기 고혈압입니다. 미국인의 14%가 중년기에 고혈압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9%가 중년기에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년기에 고혈압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1.6배 증가합니다.

셋째는 중년기 비만입니다. 미국인의 13%가 중년기에 비만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3%가 중년기에 비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년기 비만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1.6배 증가합니다.

넷째는 우울증입니다. 미국인 성인의 19%가 우울증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3%가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1.9배 증가합니다.

다섯째는 운동부족입니다. 미국인 성인의 33%가 운동부족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18%가 운동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부족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1.8배 증가합니다.

여섯째는 흡연입니다. 미국인 성인의 21%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7%가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흡연을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1.6배 증가합니다.

일곱째는 저학력입니다. 미국인 성인의 13%가 저학력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40%가 저학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학력



인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1.6배 증가합니다.

당뇨병, 중년기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운동부족, 흡연, 저학력 7가지는 미국 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의 54%를 기여하고, 전 세계 알츠하이머 치매발생의 51%를 기여한다고 반즈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일곱 가지 위험 요인만 없앨 수 있다면 전 세계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의 51%는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집단기여위험도 분석이라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산출한 결과이니까 100% 정확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치매 발생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치매발병과 관련하여 절반은 비록 운명의 장난에 맡길지언정, 나머지 절반은 인간이

노력하여 예방할 수 있다는 “진인사대천명”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성격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예민한 성격, 게으른 성격, 냉소적인 성격이 각각 치매의 위험을 3배씩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수칙, 몰라서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실천력입니다. 만일 치매가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화잇 나우!

소식

교수회 소식



2015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 개최

지난 9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 종합관 12층 ‘코너스톤’에서 2015년도 2학기 본교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신입교원 9분 중 6분이 참석해주셨으며 교수회 이순일 의장과 신강현 총무가 신입교원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 모습

교수회 조교수/부교수 간담회 개최

교수회에서는 각 단과대학 대의원 추천을 받은 19분의 조교수/부교수를 초청하여 참가자 일정을 고려해 10월 20일 18시(8명 참가)와 10월 22일 12시(7명 참가) 2회로 나누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는 크게 인사 및 승진·승급, 보수 및 예산 편성 문제, 기타의견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단과대학과 직급별로 여러 교수님들이 모이신 귀중한 자리였기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수회 제72차/제73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10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율곡관 영상회의실(151호)에서 제72차 교수회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어서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에서 제73차 교수회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편집위원회: 노명우(편집책임), 강충권, 구형건, 김상배, 윤호섭, 이재호